

### 8월 8일(월) / 대하10-13

▶**내용요약:** 역대하 10장에서는 솔로몬을 계승하여 르호보암이 왕이 되지만 어리석은 결정으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라가 분열된다. 11장에서는 르호보암의 통치와 그의 가족관계를 볼 수 있다. 12장은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하자 애굽의 공격을 받는다. 르호보암의 최후도 기록된다. 13장은 유다의 두 번째 왕인 아비아의 통치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가 나온다.

▶**질문:** 팔호를 채우세요. “내 아버지는 가족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10장)

▶**생각하기:**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으로 국가가 분열되긴 했지만 11장에서는 르호보암이 국가를 잘 통치하는 모습이 나온다. 하지만 12장 1절에 보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와 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으리라”고 한다. 르호보암의 마음이 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바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그분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 8월 11일(목) / 대하20-23

▶**내용요약:** 20장은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해오지만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를 거둔다. 21장은 유다의 5대왕인 여호람에 대한 기록으로 그는 악한 왕이었기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22장은 유다의 6대왕인 아하시야와 그의 어머니 아달라의 악한 통치가 기록된다. 23장은 아달라가 몰락하고 요아스가 왕이 되어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다.

▶**질문:**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 왕 여호람이 신체의 어느 장기에 병이 들어 2년 만에 죽었는가?(21장)

▶**생각하기:** 모압과 암몬의 공격으로 곤경에 처했을 때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20:12)라고 간구한다. 이에 하나님은 아하시엘을 통해 응답하시길,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선언하신다. 결국 유다백성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된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분의 응답을 얻게 될 것이다.

### 8월 14일(주일) / 대하30-32

▶**내용요약:** 30장은 히스기야가 오랫동안 이스라엘에서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규례에 따라 지키는 모습이 나온다. 원래 유월절은 출애굽하면서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지만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함으로 유월절이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히스기야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후에 유월절을 자기가 다스리는 유다 왕국 뿐 아니라

### 8월 9일(화) / 대하14-16

▶**내용요약:** 14장은 유다의 3대왕인 아사의 선한 통치가 기록된다. 그는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폐기한다. 또한 구스와외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큰 승리를 거둔다. 15장은 아사의 개혁이 이어져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을 맺는다. 16장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아사의 말년이 기록된다. 이스라엘이 공격해오자 하나님이 아닌 아람을 의지함으로 책망을 받고 이어 밭에 병이 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아닌 의사를 의지한다.

▶**질문:** 아사가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해 하나님이 아닌 아람 왕을 의지한 것을 책망한 선견자는 누구인가?(16장)

▶**생각하기:** 아사는 구스가 공격해오자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14:11)라고 기도한다. 아사는 자신이 하나님 편에 있음을 확신했기에 공격해오는 자신의 적이 바로 하나님의 적임을 고백했던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어떤 문제나 대적 앞에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아사처럼 할 수 있을 것이다.

### 8월 12일(금) / 대하24-26

▶**내용요약:** 24장에서는 유다의 8대왕인 요아스의 통치가 기록된다. 초기에는 선정을 베풀었으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우상숭배를 자행하고 여호야दा의 아들까지 죽인다. 25장에서는 유다의 9대왕인 아마샤가 우상숭배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다. 26장은 유다의 10대 왕인 웃시야가 초기에는 하나님을 찾으며 선정을 베풀었지만 말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자신이 직접 분향하려다가 병이 들어 격리생활을 하다가 죽음을 맞는다.

▶**질문:** 웃시야가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마에 생긴 병은 무엇인가?(26장)

▶**생각하기:**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왕들인 요아스, 아마샤, 웃시야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모두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개혁을 단행하여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마음이 변심하거나 교만하여 우상숭배를 하면서부터 몰락을 자초하고 만다. 평생 변하지 않고 일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자!

북쪽 이스라엘까지 지키도록 한다. 31장에서는 히스기야가 개혁을 통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성전 제사를 회복시킨다. 32장은 앗수르의 침입으로 예루살렘이 위협을 당하긴 하지만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이를 극복한다. 그는 잠시 교만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

▶**질문:**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라는 말을 하면서 히스기야와 백성을 위협했던 앗수르 왕은 누구인가?(32장)

### 8월 10일(수) / 대하17-19

▶**내용요약:** 17장은 유다의 4대왕인 여호사밧의 통치가 기록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심으로 나라가 강성해진다. 18장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과 연합하여 길르앗 라못을 치러할 때에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여기서 미가야만 패전을 예언하고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19장은 예후가 여호사밧의 잘못을 책망하고 이후 여호사밧의 개혁이 이어진다.

▶**질문:** 선견자 예후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잘못을 책망하면서 그가 행한 선한 일도 있다고 한 것은 무엇인가?(19장)

▶**생각하기:** 길르앗 라못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면서 아합과 여호사밧은 선지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4백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은 왕이 원하는 대로 승리를 예언하지만 미가야 선지자는 패전을 예언한다. 4백명 vs 1명의 싸움. 참된 예언을 한 결과로 미가야는 감옥에 갇혀서 고난의 떡과 물을 먹는다. 지금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완전한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의지하고 있는가?

### 8월 13일(토) / 대하27-29

▶**내용요약:** 27장은 유다의 11대 왕인 요담이 비교적 선한 통치를 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한 모습을 보인다. 28장은 아사가 유다의 12대왕에 오르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함으로 인해 백성들이 죽임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고통을 당한다. 29장에서는 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가 성전에서의 예배를 회복하는 신실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질문:**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죽인 용사의 수는 얼마인가?(28장)

▶**생각하기:** 요담은 왕이 되고 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선한 통치로 백성을 다스린다. 하지만 말씀은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27:2)고 기록한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은 좋았지만 요담에게 아쉬운 점은 왕으로서 그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영향력도 미치고 있지 못한가?

▶**생각하기:** 11대왕 요담과 달리 히스기야는 자신이 다스리는 유다 뿐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규례대로 지키도록 독려하면서 분열된 민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다. 히스기야가 자신이 통치하는 유다만 생각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 자신과 가족만 돌아보지 말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보는 성서인들이 되자!